

축포와 대포... 지구촌 새해 '같은날 다른 풍경'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100만명 인파 아시아 각지 랜드마크서도 축하행사 전쟁통 가자 새해 분위기 찾기 어려워 러시아 모스크바 콘서트 등 행사 취소



새해 첫날인 1일(현지시간) 100만명의 국내외 인파가 몰린 가운데 호주 시드니 하버브리지와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새해맞이 불꽃놀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가 1일(현지시간) 지나간 2023년의 아쉬움을 잊고 2024년 새해가 더욱 밝고 희망차길 설레는 마음으로 기원했다.

그러나 전쟁이 해를 넘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불꽃놀이 대신 포성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한 지구 동쪽 끝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도시의 최고층 빌딩인 스카이 타워를 비추는 레이저 조명, 애니메이션 쇼와 함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1만3천500발의 형형색색 불꽃이 새해와 함께 오페라하우스의 50주년을 축하했다.

시드니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100만 명이 하버브리지 주변 바닷가와 보트에서 신년을 맞이했다.

전통적으로 음력 새해를 크게 축하하는 중국의 경우 과거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 하에 있었던 홍콩과 마카오에서 대규모 축하 행사가 열렸다.

홍콩에서는 수만 명의 인파가 빅토리아 항구에 모여 불꽃놀이를 즐겼다.

태국 방콕의 차오프라야 강, 대만 타이베이 101 빌딩 등 아시아 각지의 랜드마크에서도 화려한 축포를 터뜨렸다.

유럽에선 신년 행사를 앞두고 축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긴장감도 흘렀다.

대규모 행사 대신 거리마다 삼삼오오 축포를 쏘

는 전통이 있는 독일에선 본격적인 축하가 시작되기도 전에 폭죽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베를린에선 코로나19 기간 금지된 폭죽 관련 규제가 해제되면서 소방차가 1천700차례 출동했고 흥분한 군중이 구조대를 공격하며 부상자가 속출했다.

올해도 4500명의 경찰이 베를린 거리 질서 유지

에 나섰다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금지했다.

150만 명의 인파가 샹젤리제 거리로 몰려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프랑스 파리에는 경찰 6천 명이 투입됐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한 테러 위협이 제기되면서 5000명의 군인이 만약의 사태

에 대비하고 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은 커밀라 왕비와 함께 신년 전야 예배에 참석해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미국 뉴욕에선 올해 신년 행사 인파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

는 축하 행사를 앞두고 "특별한 위협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타임스퀘어에서 수 불꽃 떨어진 도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3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다.

올해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완충 지대를 만들어 시위 위협을 차단하고 드론을 띄워 감시를 강화했다.

전쟁 3개월을 앞둔 가자지구에선 새해의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새해 전날도 이곳에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35명이 숨졌다고 의료 당국자가 전했다.

피란민들은 더는 대피할 곳도 없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날도 음식과 물, 지낼 곳을 찾아 헤매야 했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피란을 온 중년 남성 아부 압둘라 알야기는 "올해는 폐허가 된 집터로 돌아가 텐트라도 치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침공이 2년을 앞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다.

키이우 시민 테티아나 쇼스트카는 "승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선 전통적으로 붉은 광장에서 열린 불꽃놀이와 콘서트가 2년 연속으로 취소됐다. 전날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가 포격을 받은 것을 계기로 모스크바 외 다른 곳에서도 신년 행사가 취소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해 전날 일요일 기도에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 수단 국민과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교황은 "무력 충돌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파괴와 고통, 빈곤이 발생했는지 자문해야 한다"며 "이들 분장에 관련된 이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24년 뉴욕증시...금리인하 시기·대형 기술주 실적 등 주목

블룸버그, 미 증시 5개 테마 제시

미 대선, 일본·중국 정책 관심

블룸버그통신이 금리인하 시기와 대형 기술주들의 성장 전망 등 투자자들이 2024년도에 주시해야 할 5가지 테마를 소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미국 증시 주요 지표들이 9주 연속 강세로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마감하고 새해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낙관론이 팽배하며 올해 지켜봐야 할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주목할 사안으로 금리인하 시기가 꼽혔다.

시장에서는 더 신속하고 큰 폭의 금리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스와프 트레이더들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를 약 1.5%포인트(p) 인하할 것이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다.

이는 연준 인사들이 예측하는 수준의 배에 해당한다.

사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지난해 마감

시점에서 연준이 올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86.6%로 봤다.

다음으로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성장 전망이다. 반도체기업 엔비디아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르기까지 7대 대형 기술주들이 인공지능(AI) 열풍을 등에 업고 지난해 S&P 500 지수 상승의 64%를 담당했다.

이들 소위 '매크니피센트 7' 기업들은 올해 수익이 22% 성장하면서 S&P 500 전체 기업 상승률의 배를 기록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전했다.

미국 대통령선거도 주목해야 할 테마다.

블룸버그는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하는 선거 해의 경우 역사적으로 주식에는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스톡 트레이더 연감(Stock Trader's Almanac)에 따르면 1949년 이후 선거 기간에 S&P 500은 평균 약 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은 경우는 평균 1.5% 하락했다.

통상 현직 출마자들이 경제와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새 정책을 시행하거나 세금 인하를 도모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한다.

네 번째로는 아시아 리스크다.

일본의 닛케이 225 평균주가는 일본은행의 초완화 정책과 엔화 약세로 인해 지난해 3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지만, 올해 초에는 난관에 직면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경기 부양책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도의 4월 총선도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의 정책이다.

채권시장에서는 ECB가 오는 4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주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한다.

또 영국은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연준과 ECB의 완화정책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트럼프 前 여성 참모 3인 "트럼프 재선 막아야"

그리핀 前 전략소통국장 등

"집권 2기는 민주주의 종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요직을 맡았던 여성 3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엘리사 파라 그리핀 전 백악관 전략소통국장, 세라 매튜스 전 백악관 공보담당 부비서관, 캐시디 허친슨 전 백악관 보좌관은 12월 31일(현지시간) 방영된 ABC 뉴스 공동 인터뷰(사전 녹화)에서 한목소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핀 전 국장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트럼프 집권 2기는 미국 민주주의의 '종언'을 의미할 수 있다"며 미국 대중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선거를 훔치려" 시도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핀은 그러면서 "그것은 트럼프가 권력 장악 및 유지를 위해 모든 장벽을 가리며 부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매튜스 전 부비서관도 "트럼프의 권력 복구에 대한 집착은 강도를 더해왔고, 그의 수사는 점점 더 변덕스럽다"며 "오늘날까지도 그는 선거를 도둑맞았으며, 부정선거였다는 생각이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튜스는 "내 평생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적이 없었지만 나는 다음 선거(2024년 11월 대선)에서는 정책은 옳으로 치워두고 민주주의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친슨 전 보좌관 역시 "이번 선거는 우리의 제도와 '입헌 공화국'을 계속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선거"라며 "우리가 국가적으로 실패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최종적으로 정착된) 정치체제가 아닌) 하나의 실험'임을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의사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사회장 박유환

대표전화. 062_529_2101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18번길 25(신안동)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